

1월 19일, 전국에 퍼져있는 연극인 일동, 빛을 밝히며 서약함으로 시작됩니다:

고스트라이트 프로젝트.



2017년 1월 19일, 미국 전역의 각 시간대 별로 오후 5시 30분에 브로드웨이부터 주요 지방 극장들을 비롯하여 고등학교, 대학교, 아마추어 커뮤니티 극단들을 포함한 전국의 연극인 단체들은 연대하여 고스트라이트 프로젝트(The Ghostlight Project)를 본격 개시할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 각 극장건물 앞에 모여 앞으로 부딪칠 난관들에 맞설 “빛”을 함께, 그리고 동시에 만들어낼 것입니다. 조명기구를 모두 잠재운 어두운 극장에도 항상 “고스트 라이트”를 무대 위에 켜두는 연극 전통을 따라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은 인종, 사회계층, 종교, 출생지, 이민신분, 장애, 나이, 성적체성, 성적지향성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향한 포용, 참여, 그리고 관용의 가치를 지지하고 변호할 것을 새롭게 혹은 재차 서약할 것입니다.

1월 19일은 모든 종류의 편협적 탄압에 대한 저항의 큰 흐름 아래 하나의 갈래로 모이는 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향후 몇 년 간 빛이 되는 담대한 공간들을 형성하고 전국적으로 탄압대상이 되는 집단들을 지지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위 혹은 직접행동을 대체하기 위함이 아닌 지속적인 각성과 지지 확대를 위한 서약임을 밝힙니다.

담대한 공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인종, 사회계층, 종교, 출생지, 이민신분, 장애, 나이, 성적체성, 성적지향성 등에 따른 차별없이 각 사람의 본모습으로 사는 것이 안전한 곳.
- 다양한 의견, 이견 그리고 논쟁이 용인되고 더 나아가 환영받는 곳.
- 능동적인 경청과 용감한 대화가 본질적 가치인 곳.
- 집단행동, 시민활동, 지역사회와의 참여연대 등이 극장건물 안팎에서 형성되고 장려되며 지원받는 곳.

일부 예술인과 극장단체에게 1월 19일의 행사는 시작점이 될 것이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다른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참여자들의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기관과 개인마다 해당 기관과 지역사회에 가장 필요한 지속적 행동이 무엇인지 파악할 책임이 있습니다.

행동개시: 2017년 1월 19일

미국 전역의 각 시간대 별로 2017년 1월 19일 오후 5시 30분에 우리는 전국에 퍼져 있는 극장 및 예술 공간 앞에 모일 것입니다. 본 집결행위는 향후 몇 년 간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상징할 것이며 개인 예술가 및 기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속적 행동

고스트라이트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연극장, 예술 단체 및 개인들이 의미있는 행동 단계들을 식별하고 생성하는 작업, 혹은 이미 시작되어 진행중인 사회정의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작업을 돕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갈증이 있는 참여자들은 아래 예시들을 참고하여 영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 동료 배우, 스태프, 예술인들을 모아 탄압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들을 돕는 기관(Charity Navigator과 같은 시스템 참조)에 월정액 기부합니다.
- 동료 예술인들과 함께 자원봉사 모임을 설립하여 매월 “봉사 월요일”을 설정합니다.
- 지금부터 6개월 내에 탄압대상이 될 수 있는 주제, 지역, 이슈 등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 정보를 알고자 하는 주변인들에게 전문지식을 나누고 상담을 해줍니다.
- 중요한 이슈를 정하여 지역 혹은 주지 대표들에게 매일 혹은 매주 전화하여 항의합니다.
- 규칙적으로 지역 혹은 주지 선출임원에게 전화하도록 예술인 연락망을 형성합니다.
- 주변인들에 각종 이슈를 지원하는 기관 혹은 비영리단체를 소개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나누고 유폐하는 자원이 됩니다.

기관:

다양성과 포용성의 공간이 될 것을 서약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었을 경우 인정합니다.

지시하고자 하는 단체와 기관들의 의견에 경청합니다. 그들의 우려와 필요는 무엇입니까?

- 시간적 자원, 인적 자원, 자원적 자원을 기여할 수 있는 단체와 일대일 관계를 정립하거나 강화합니다. 초대권, 토론장, 투어, 혹은 공간을 제공하여 목표단체가 극장 혹은 기관과 깊이 친밀해져서 정보근거적인 결정과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함께 소통하며 진정한 파트너쉽과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합니다.
- 지역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알게 된 단체들과 다시 미팅을 주선하여 앞으로 본 기관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화의 문을 엽니다. 현 사회상황에서 단체들이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 본 기관이 개시하고 유지한 사회정의의 행동, 프로그램, 기획안 등을 타 기관들과 공유합니다.
- 사회정의 혹은 유색인종에 초점을 맞추는 극장과 소통하여 공동의 노력을 증폭하고 확대합니다.
- 본 기관의 이사회, 스태프, 관객의 인구통계적 구성에 대한 지식을 숙지하고 개선에 대한 목표를 설립합니다. 극장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향후 X 년 이내에 이 구성비율을 극장에 반영할 계획을 세웁니다.
- 사회정의의 단체들의 미팅, 이벤트, 모금행사, 훈련업무 등을 위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 극장 스태프, 지역사회 주민, 이웃 등을 만나 소통할 수 있도록 회식 등을 개시합니다.
-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대합니다. 길 건너 있는 모스크를 매주 방문합니다. 근처 고교 성소수자 동호회를 찾아가 그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빌려줍니다.

위는 몇 가지 아이디어였으며 더 많은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당신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우리 이메일 (wearetheghostlightproject@gmail.com) 혹은 프로젝트 공식 페이스북 그룹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이미 지역사회연대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가치를 옹호할 때만은 연대해야 합니다.

당신의 세상에서 사회정의를 위해 매일/매주/매달 노력하고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